

통권 제 252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10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경전에서 찾은 지혜
은애 恩愛의 텃



생각의 열매
거지 팔자
정승 팔자

 불교충지중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종조법설집

제 3장 잠언편 P.200

이타利他가 위대한 자리自利

대중을 이롭게 하면 그 사례로서 자기도 이로우며
완전한 장원한 이익이고 화평和平과 은애恩愛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복락이 무궁하다.



불교 이야기 _10

마음챙김 메커니즘 _20

마음의 등불 _46

육자대명다라니六字大明陀羅尼

하심下心과 참회懺悔

자기만큼 소중한 것

_⑤ 서사의 공덕

- 수행의 두 바퀴 ①

_ 록경 정사

_ 원당 정사

_ 임진수

목차

2568
2024

10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10 불교 이야기

14 경전에서 찾은 지혜

16 지장 스님의 향유

20 마음챙김 메커니즘

25 마지막 공부

28 절기 이야기

30 문화재 해설

34 고전 속으로

38 산책

40 살다보면

46 마음의 등불

50 지혜의 뜨락

53 슈베르트 따라잡기

56 십선성취

60 담마빠다

62 생각의 열매

66 동행

68 서원당 안의 불교

70 금쪽상담소

72 나만의 빛, 모두의 빛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78 법회일정

불공 잘해라_구경의 법(최종회) — 김천

육자대명다라니六字大明陀羅尼_⑤ 서사의 공덕 — 원당 정사

은애恩愛의 덧 — 불교총지종 법장원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 지장 스님

하심下心과 참회懺悔_수행의 두 바퀴 ① — 임진수

지극히 자연스러운 — 유소림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 — 위드다르마 편집실

청녕 4년명 동종 — 위드다르마 편집실

범 같은 정의 — 이영진

따찌 — 오대혁

커피 도시 강릉을 아시나요? — 이옥경

자기만큼 소중한 것 — 록경 정사

맑은꼴 시대에서 나를 지키기 — 방귀희

슈베르트 병 — 우벽송

물건 제도 철학 — 남혜 정사

마음의 힘 — 화령 정사

거지 팔자, 정승 팔자 — 위드다르마 편집실

노력하는 재능 — 탁상달

총지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 — 해광 정사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3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위드다르마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일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정승은 한 나라의 의표^{義表}이다

조선 후기 호조판서, 예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정홍순'은 청빈하고 검소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정홍순은 10년간 호조판서를 지내면서
재정문제에 특히 재능을 발휘하여
나라의 재정이 풍족해질 정도로
당대 제일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정홍순은 항상 검소와 절약으로 일관하였으며,
매사에 치밀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가 공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정홍순이 가지고 있던 엽전이
두 동강 나버려 못쓰게 되자
사람을 시켜 엽전을 대장간에 가서
다시 붙여오라 했습니다.

엽전 한 닢을 고치는데
엽전 두 닢의 비용이 들게 되었는데
대장간에 다녀온 사람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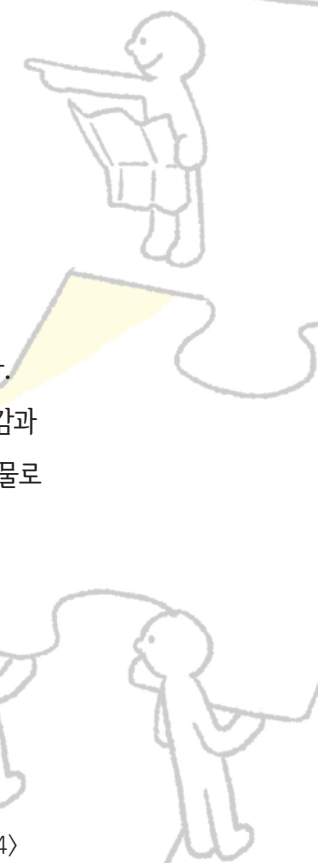
“엽전 한 닢을 땀질하는데 두 닢 들었습니다.
그러니 손해가 아닌가요?”

그러자 정홍순은 고개를 저으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나 개인은 한 푼을 잃었어도,
나라에는 한 푼의 이익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그 돈을 오래 쓸 수 있게 되니
어찌 손해라 할 수 있겠느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서면 그만큼의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리에 맞는 인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라의 큰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4. 9. 24>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대허 흥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21화 - 법계와 함께(최종회)

설법과 일상의 대화가 다르지 않고, 가르친 것과 실제 행한 바가 같으니, 교도들이 대성사를 대하기를 때로는 친근하게 더러는 엄숙하게 했으나, 한결같은 회상은 “함께 있으면 주변이 고요해지고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100명이 모여 있어도 멀리서도 대성사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종단이 자리를 잡고 전국에서 밀교 수행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대성사는 창종 이후 한국 현대 밀교 사상 최초로 삼매야계단三昧耶戒壇과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열어 관정식灌頂式을 베풀고 정통밀교를 전수할 아사리阿闍梨를 배출했다. 창종 만 7년, 교세는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나 30여 곳의 사원이 개설되고 행정 기관인

통리원과 함께 교리적인 면을 뒷받침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법장원이 신설되었다. 또한 교도들의 참여와 신행 활동을 돕기 위하여 신정회가 결성되었으며 각종 교전이 편찬되었다.

세상의 고난을 불법으로 해량하고, 이 몸 이대로 쉬이 성불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펼쳐졌다는 소식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서원당이 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와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교의와 수행 체계 역시 발전을 거듭했다. 밀교 수행의 궁극 목표는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곧 부처라는 철저한 자각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이 몸 그대로 현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개인의 자성과 법신불의 진리를 합일하기 위해 삼밀가지三密加持 수행법을 닦는다. 원정 대성사는 이를 ‘현세정화現世淨化 즉신성불即身成佛’의 가르침으로 구체화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이라 해도 가까이하기 어렵다. 환경이 순탄하지 못하면 불도 수행도 여의치 못하기에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밀교의 의례 가운데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며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의례들은 성불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수행 여건을 조성하여 중생을 성불로 이끌려는 방편이다.

질병과 재난 등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행을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개인의 욕망을 승화하여 보다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발심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의 고통은 사회 환경의 조건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정 대성사는 항상 이 사회에 필요한 종교, 나라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재난을 여의고 복을 이루며 세상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불성을 밝혀 부처가 되기를 발원하라고 가르쳤다. 성불은 결코 특별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머나먼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하는 일도 아니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불할 것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했다.

즉신성불을 지향하는 고도의 차원 높은 수행법과 재난을 여의고 복을 이루는 현세 이익의 의궤법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개인과 환경을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는 현세 정화와 스스로 불성을 자각하고 부처와 하나 되는 즉신성불이 진언행자의 수행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육신의 소멸은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칠순이 넘은 노령의 육체는 쇠약을 피할 수 없었으니, 법계의 불사는 남아 있어도 대성사는 세상의 인연이 다함을 느끼고 있었다.

육신은 물질이니 소멸의 인과를 따라가나 마음은 법신과 함께하여 법계에 그 원을 새겨 영겁을 거듭해 현전하는 법이라고 주변에 일렀다. 당시 스승들은 대성사로부터 더 많은 법을 전해 받고자 경을 보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와 묻곤 했다. 세세히 설명했으나 때가 됐음을 알아 안타까운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건 이런 이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자네는 아직까지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이를 어찌할 터인가...”

대성사의 몸은 쇠하여가도 눈빛은 빛을 잃지 않았다. 병고의 고통 없이 시절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곡기를 물려 세간 인연을 정리하였다.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되어 주변 사람이 들것에 대성사를 들어 옮기자 이런 말로 안타까움을 대신했다.

“이 육신으로 세상사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나, 이제 이렇게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때가 왔구나. 마음은 그대로이나 몸은 새털처럼 가볍게 됐다.”

아쉬움은 남고 안타까움에 가슴 시린 날이 왔다. 인연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으니, 인생은 무상하나 가르침은 그치지 않고 천세를 넘어 억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몸은 허깨비 같고 세월은 아지랑이 같아 잡을 수 없고 멀하는 슬픔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

이다. 1980년 9월 8일, 몇몇 스승과 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성사는 마지막 법문을 남겼다.

“불공 잘해라.”

평소의 가르침대로 짧고 강한 말이다. 태양은 사라지지 않고 빛은 우주에 가득하니, 세연이 다하는 순간에도 삼밀의 공덕을 당부하였다. 처음과 끝이 같고 세상에 온 뜻과 법계로 돌아간 원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국 현대 밀교를 일으켜 법답게 위의를 갖추게 하고 정통 밀교를 바로 세운 인연은 세상의 인연 74년을 끝으로 빛으로 돌아갔다. 법계가 다하도록 공덕은 무량하고 복덕은 무진하니 후세의 제자들과 스승들과 교도들이 그 은덕을 이어 진리를 구현할 바이다. 대성사는 법계와 일체가 되어 지금도 가르침으로 머무시니 그 뜻을 받아 삼밀을 성취하고 세상을 위해 총지의 진리를 전할 것이다. ‘불공 잘하라’는 대성사의 가르침은 오늘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불공 함에 있고
칠일 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 함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 함에 있고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평생 동안 행복함은 불퇴전에 있느니라.

- 『종조 법설집』 중에서



1979년 4월 26일 원정 대성사 종령 추대식



서울 역삼동 불교총지종 본산 소재 원정기념관 모습

선남자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육자대명다라니를 서사한다면, 팔만 사천의 법장을 서사한 것과 똑같아 다툼이 없고, 만약 어떤 사람이 천상의 금과 보배로서 미진수 여래응정등각의 형상을 만들고, 이와 같은 여래에게 하루 동안 공경 찬탄 공양하여 얻는 과보는, 이 육자대명다라니 중의 한 글자를 서사하여 얻는 과보공덕보다 못하니, 불가사의 해탈에 잘 머물기 때문이니라.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 공덕과 더불어 서사하는 공덕이 무량함을 설하고 있다. 또 경전에서 “그때에 마땅히 육자대명 총지문을 증득하여”라며, 다라니를 ‘총지문’으로 부르는 것은 육자대명다라니가 무수한 의미와 무량한 공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라니는 법^{Dharma}, 바로 그것이기에 법이 갖는 모든 덕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육자대명다라니를 한 자 한 자 서사하는 공덕이 팔만 사천의 법장을 서사한 공덕과 다툼이 없으며, 육자대명다라니를 한 자 한 자 서사하는 공덕이 여래에게 드리는 가장 수승한 공경 찬탄 공양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육자대명다라니와 함께 준제다라니에 대해서도 함께 설하고 있다. 제개장보살이 바라나대성의 한 법사에게서 육자대명다라니를 얻고 나서 석가여래께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정례를 드리자, 이때에 칠십칠구지의 여래응정등각께서 모두 와서 모이셨는데, 그 모든 여래께서는 모두 함께 다라니를 말씀하시되, ‘나무 샷다남 삼막삼뫼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라고 육자대명다라니와 함께 준제다라니를 설하신다. 그리고 칠십칠구지 여래응정등각께서 이 다라니를 설하실 때에, 관자재보살의 털구멍에서 여러 가지 상서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칠십칠구지의 여래응정등각께서 이 다라니를 말씀하실 때에, 저 관자재보살의 몸에 한 털구멍이 있으니 이름이 일광명이라 하였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백천만구지 나유다의 보살들이 있고, 그 일광명이라는 털구멍 안에는 또 일만 이천의 금산이 있으며, - 중략 - 또 무수한 백천만의 금보로 장엄한 누각이 있고, 그 위에는 백천의 의복과 진주로 된 영락이 걸려 있으며, 그 누각 안에는 미묘한 여의보주가 있어서, 그 모든 보살 마하살에게 필요한 일체의 자구를 공급하게 된다. 보살들은 그 누각 안으로 들어가서 육자대명다라니를 염송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육자대명다라니와 준제다라니의 공덕이 상승적으로 나타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육자대명다라니에 따른 규범상의 맥락 속에 준제다라니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육자대명다라니를 설할 때 칠십칠구지 여래께서 와서 함께 준제다라니를 설한다는 의미는 육자대명다라니에 대한 상승 작용의 진언으로서 준제다라니를 설하는 것이다. 다른 경전에서도 준제다라니를 설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대성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미래의 모든 중생을 사유하고 관찰하시고 가없이 여기시어, 과거 칠구지준제여래불모다라니를 설하시었다.” 『불설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

옛날 한 늙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성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네 정성이 지극하니 너에게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일러 주겠다. 네가 지금부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곧 염라대왕 앞에 나아갈 터이다. 그때 염라대왕이 어떤 시련을 가하더라도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너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 수행자는 입을 딱 다물고 어떤 경우에도 침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나아갔는데, 어떤 말을 물어도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온갖 모진 고문을 하면서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놈이구나.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 말을 끌고 오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사자들이 암말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이 말이 누군지 알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네 어미다.” 놀란 수행자는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네 어미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보기로 하자. 여봐라, 시작하여라!” 사자들이 채찍으로 말을 마구 때리니, 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 목소리는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수행자는 말을 꺼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텅 빈 허공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애^{은愛}의 덧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이제 성불하기는 틀렸구나!”

“고통이 뒤따르는 세상의 즐거움에 어찌 탐착하여 한 번 참으면 길이 즐겁거늘 어찌 닦지 않는가. 도인의 탐욕심은 수행인의 수치요, 출가인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군자의 웃음거리니라.”

- 원효 대사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이입사행론 二入四行論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달마대사가 저술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 중에 『이입사행론 二入四行論』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두 가지 큰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면벽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이입 二入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네 가지 실천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행입 行入의 길입니다. 네 가지 실천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원행 報怨行입니다.

보원행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임을 알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미래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을 짓지 않으려는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 수연행 隨緣行입니다.

수연행은 만남과 헤어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인연에 의해 벌어짐을 알고, 이를 통해 집착과 원망 등의 불필요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실천입니다.

세 번째로 무소구행 無所求行입니다.

무소구행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나 미래, 혹은 망상에 빠져 쓸데없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실천입니다. 삼매를 성취하여 무심으로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청법행 淸法行입니다.

청법행은 모든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존재물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본래의 고유한 실체가 없고 조건적이고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 즉 공空의 진리를 잘 알고 살려는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세상에 가졌던 근원적인 집착과 분별심을 버리고 항상 지혜롭게 살기 위한 실천과 노력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나 아무런 의도도 가지지 않았는데 미움을 받거나 억울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이러한 상황은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 마음은 급격히 우울해지고 강한 분노와 불안 등이 일정 기간 아주 불편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냅니

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한 원망의 마음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괴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행입^{行入}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실천법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분명히 마음 상태는 달라집니다. 그냥 벌어지고 있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받아들일 때와 달리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거나 깊은 통찰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분명히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반대의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모든 일은 나름의 원인과 조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싫든 좋든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반응 또한 나에게 돌아옵니다. 보원행과 수연행을 통해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힘든 일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무소구행을 통해 우리는 필요에 따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법행을 통해 나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근본적으로 괴롭지 않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다친 마음의 치유는 결국 지혜로운 수행의 실천으로 성취됩니다.



Photo by Deniz Altindas@Unsplash

하심_{下心}과 참회_{懺悔}

- 수행의 두 바퀴 ①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요즘 우리는 ‘명상’을 한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렇게 현대적인 명상이 대중화되기 전, 불가_{佛家}에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좌선과 절이 있고,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기도가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수행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

수행법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표로 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심_{下心}과 참회_{懺悔}라는 두 개의 바퀴이다. 이 두 개의 바퀴는 중생심을 바로 보게 해주기 때문에 에고_{ego}가 일어날 틈을 주지 않는다. 이 두 개의 바퀴는 양축이 되어 수레를 앞으로 몰아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그래서 하심과 참회는 승려가 되기 위해 절집에 들어가는 사람, 즉 행자_{行者}: 예비 스님에게는 필수적인 행동 준칙이 된다. 그러면 왜 이 두 용어가 그토록 스님이 되려는 사람에게 중요할까?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타나는 마음의 관성_{慣性}: 業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기 때문이다.



하심_{下心}

하심은 미래에 일어날 마음의 관성에 관여한다. 말 그대로 하심은 마음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한 겸손과는 다르다. 겸손은 자기 생각은 그대로 둔 채, 상대에 대해 자세나 태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즉, 겸손은 겉으로 표현되는 행위이다.

이에 반해, 하심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 자기 생각을 쓰지 않고 선배나 스승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 혹은 분별심 이전 무분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생각과 행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왜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 이전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것인가? 그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이 마음의 관성이고, 업이며,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두고 수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의미가 없다.

하심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해준다. 불교라는 종교적인 큰 틀에서, 삶의 방식을 개인적인 방식에서 집단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바꿔 살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하심을 하지 않은 수행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더 고집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해석한 주관적인 수행이 된다. 그래서 자신은 수행하고 좋아진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자신을 또 다른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경우가 많다.

참회 懺悔

이에 반해 참회는 과거에 일어난 마음의 관성에 관여한다. 현재의 나를 만든 과거의 나를 돌이켜서 고치는 방법이 '참회'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반성이 있다. 하지만 참회와 반성의 큰 차이는 반성은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뉘우치는 정신적인 행위라면, 참회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해서 현재의 나를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참회는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일으켰

던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참회하는 것이다. 스스로 반성을 넘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오하며 다짐하는 것이 참회이다.

참회의 어려운 점은 자신의 과거를 낱알이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참회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신을 돌이키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참회는 일반적인 기억을 토대로 시작하지만, 거듭할수록 자아에 의해 왜곡된 기억과 내면의 깊고 깊은 곳에 숨겨둔 채 드러내기 싫은 기억,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행위에 대해 타인이 받은 상처를 외면한 기억 등 드러나는 과거의 나를 직면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인간은 생각보다 과대표장된 의식으로 자아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과연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

하심과 참회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회를 통해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새로운 현재의 나를 만들면서, 동시에 현재의 내가 만들어 갈 미래의 나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와 미래의 나를 모두 바꿔나가는 것이 수행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하심과 참회는 정말 어렵다. 자기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불교수행이 일반 명상과 큰 차이가 생긴다. 일반 명상은 적당한 자기 긍정을 필수 요소로 한다. 이것은 일반 명상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법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심리학 기반의 명상법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난 후, 자기 객관화를 통해 치유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자기를 그대로 둔 채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이런 자기 긍정 방식의 명상법을 통해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다.

이에 반해서 하심과 참회를 통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전혀 쉽지 않다. 참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끊임없이 ‘나’라고 생각했던 존재를 부정하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마음마저 부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기만 한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정되는 나는 가짜로 존재하는 ‘가아(假我)’이다. 이렇게 가짜 나를 부정해 나가다 보면, 저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진짜 나(真我)를 발견하게 된다. 부정되는 것은 중생심으로 사는 가짜 나일 뿐, 각성한 진짜 자신은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섯 빼기 둘은 셋이다. 이 ‘셋’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 ‘셋’에 무슨 좋고 나쁨이 있는가? 없다. 아무도 그 ‘셋’에 시비하지 않는다. 날이 추워져서 얼음이 얼었다가 날이 풀려서 얼음이 녹는다. 얼음이 생기는 건 틀리고 풀리는 건 맞는가? 아니다. 그 둘 다 시뻘거리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비아명상(非我冥想)을 한다. 수행 점검표에 동그라미도 친다. 돈망명상(頓忘冥想) 기록 노트에 정(正)자 표도 써나간다. 그런데 한마디 말에 ‘출렁!’이 생긴다. 마음속을 살펴보면 ‘나 있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에서 벗어나겠다고 이런저런 연습을 하는데, 어느 때 보면 여전히 건재하다. 개운치 않다. 마음 관리 현주소가 신통치 않다는 생각이 스친다.

이럴 때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 “탐진치를 고통을 주는 진리, 고통을 주는 여여실상(如如實相)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내 속의 미성숙이나 다른 사람 속의 미성숙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다.” 탐진치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을 떠나 있는 진리라는 스승의 말씀이다. 다섯 빼기 둘이 셋이라는 것에 아무 잘못이

없듯이 탐진치 그 자체에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그 인_원에 따라 생겨난 질서정연하고, 공평무사한 과_실이다. 날이 추우면 얼음이 생기고 날이 풀리면 얼음이 사라진다. 말 한마디에 출렁거리는가? '나 있음'의 느낌이 땀도 나는가? 그것은 세세생생 번뇌고리 위에서 춤추고 있었기에 생겨난 진_심, 분노라는 진리, 치_욕, 어리석음이라는 '진리'다. 묵고 묵은 관성이 몇 번의 명상으로 풀린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섯 빼기 둘은 제로가 아니지 않은가. 다만 그 '인과물'이 자신과 주변에 괴로움을 주고 있으므로 명상을 거듭하며 평화함을 불러올 '인'을 더 굳건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바라보니 모든 존재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서 최선의 작품이다. 그 최선의 작품을 그냥 '-구나'하고 꼬덕이고 '-겠지' 하며 그 우여곡절을 안아준다. 누군가가 미숙해 보인다면, 그것은 얼마 전의 내 모습이다. 나 또한 앞서간 사람에게는 미숙하게 보일 것이다. 누구나 미숙함을 밟아가며 성숙해 간다. 생명의 여정은 그 의식 수준이 높아가는 끝없는 여정이다. 내 부처가 내 중생을 안아주며, 세상을 안아주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평화롭다. 감나무 잎사귀들이 부쩍 성글어졌다. 감들도 익어가고 있다.



Photo by Gaelle Marcel@ Unsplash

서리가 내린다는 뜻의 ‘상강’은 양력으로 10월 23, 24일 즈음 이 된다. 태양의 황경이 210°가 되는 때이다. 이 시기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 이다. 따라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서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얼음이 얼기도 한다.

이 무렵이 되면 농촌의 들은 가을걷이로 분주해진다. 벼를 베고 타작하며, 논에는 다시 이모작용 가을보리를 파종한다. 누렇게 익은 종자용 호박을 따고, 밤과 감 같은 과실을 거두어들이며, 조와 수수 등을 수확한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마지막 고추와 깻잎을 따고, 고구마와 땅콩도 캔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정성 들여 가꾼 것을 이때 비로소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상강 무렵은 그야말로 수확의 계절이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때다.

또 이때는 국화가 피기 때문에 국화주, 국화전, 화채 등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철 음식으로는 추어탕, 무흥시채, 생강차, 호박죽, 햅쌀밥, 약밥, 토란, 고구마, 달걀찜, 잡곡, 은행 등이 있다. 제철 과일로는 배와 감이 있다.



Photo by Hansjörg Keller@Unsplash

조선시대에는 군령권을 상징하는 군기^{軍旗}인 독 앞에서 상강 때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를 독제라고 하는데, 소사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행 면에서는 격식을 한 단계 올려서 제수도 다른 소사보다 더 풍성하게 차리고 제관도 한 직급 올려서 병조판서가 맡았다.

중국에서는 상강부터 입동 사이를 5일씩 삼후로 나누어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초후는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는 때, 중후는 초목이 누렇게 떨어지는 때이며, 말후는 겨울잠을 자는 벌레가 모두 땅속에 숨는 때라고 한다. 김형수의 ‘농가십이월속시’에도 한로와 상강에 해당하는 절기의 모습을 “초목은 잎이 지고 국화 향기 퍼지며, 승냥이는 제사하고 동면할 벌레는 굶히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녕 4년명 동종

위드다르마 편집실



청녕 4년명 동종, 고려 1058년, 높이 85.4cm, 지름 54.3cm, 보물, 신수1755, 국립중앙박물관 이용진 큐레이터 추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새로운 종의 발견

높이 85.4cm의 '청녕^{淸寧} 4년명 동종'은 고려 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중형 종으로, 1969년 4월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상품리에 사는 마을 주민이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고려 시대 전기에 만든 종의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종의 발견은 그 시대 동종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려 전기 동종 양식의 정착

이 종의 용뉴와 음통, 상대^{上帶}와 하대^{下帶}, 연곽^{蓮廓}, 연뢰^{蓮蕾}를 싸고 있는 사각형의 틀과 연뢰^{蓮蕾}, 연꽃 봉오리 모양의 돌출된 장식, 당좌^{幢座}와 보살상 등은 통일신라 범종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고려 시대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용뉴를 보면, 용의 머리는 천판^{天板}에서 떨어져 정면을 바라보고, 입은 보주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1010년에 만든 '통화^{統和} 28년명 천흥사 동종'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청녕 4년명 동종'에서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 목은 S자로 굴곡을 이루고, 갈기와 비늘까지 묘사되었습니다. 다리 앞에서 뿔처럼 길게 뻗어 나온 갈기가 음통에 부착된 것은 새로운 모습입니다.

천판 가장자리에는 꽃무늬 장식을 살짝 도드라지게 표현했는데, 이와 같은 장식을 입상화문^{立狀花文}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에서 처음 나타나는 장식 요소입니다. 그 아래 종 몸체에서 상단의 띠를 가리키는 상대에는 연이어진 구슬 모양의 연주문^{連珠文} 틀 안에 모란당초무늬를 표현했고, 상대 아래에는 네 군데에 연곽을 만들어 그 안에 9개의 연뢰를 배치하였습니다.

연곽 아래에는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불상과 보살상 4구를 교대로 배치하였는데, 통일신라 종의 비천상이 고려 시대에는 불보살상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의 몸체 하단에

는 종을 치는 자리인 당좌가 있습니다. 당좌가 4개로 늘어난 것은 고려 중기 범종의 특징으로 이 종에서 처음 보입니다. 몸체 하단에 두른 띠인 하대는 상대와 같이 연주문으로 문양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모란당초무늬를 표현했습니다. 하대 위에는 위패형 문양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명문을 새겼습니다. 위패형 문양 틀은 ‘통화 28년명 천흥사 종’에 처음 나타납니다.

고려 후기 ‘입상화문대’의 시원

이 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대 위 천판 외연부에 나타나는 입상화문 장식입니다. 입상화문 장식은 고려 시대 전기와 후기 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시원 양식이 ‘청녕 4년명 동종’에 나타납니다. 입상화문 장식 이전에는 종의 천판 가장자리에 이른바 견대(肩帶) 장식을 새겼는데, 이것은 ‘성덕대왕 신종’에 처음 표현되었습니다. 이후 고려 시대 동종에서 점차 사라지며 새로운 장식 요소인 입상화문이 나타나는데, 이 종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문

하대 위에 맞붙여서 만든 위패형 틀 안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은 종에 관한 정보를 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特爲聖壽天長之願鑄成金鍾一口重一百五十斤清寧四年戊戌五月日記’

특히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여, 금종(金鍾) 1개를 주조하여 만들었다. 무게는 150근이다. 청녕(淸寧) 4년(1058년, 문종 12) 무술년(戊戌年) 5월 일에 쓴다.

명문에 따르면, 이 종은 당시 국왕인 고려 문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무게 150근의 재료를 들여 청녕 4년인 1058년 5월에 만들었습니다. 명문에 나오는 성수천장(聖壽天長)은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문구로, 불교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종을 비롯해 1086년에 제작한 태안(泰安) 2년 장생사(長生寺)명 동종에도 나타납니다. 비록 이 종이 봉안되었던 사찰과 전각의 이름은 명문에 없지만, 종을 만든 직접적인 이유가 국왕의 만수무강 기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무게 150근의 동종으로 11세기 중반 중종(中鍾)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청녕 4년명 동종’은 통일신라 동종이 고려 시대 동종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종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양식적으로는 고려 시대 후기 동종의 특징인 입상화문의 시원적인 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범 같은 정의

이영진

2023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
고전명구 부문 당선작

사람들이 바른 선비를 사랑함은 호피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살아 있을 때는 죽이려 들고 사후에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人之愛正士 好虎皮相似 生則欲殺之 死後方稱美
인지애정사 호호피상사 생즉욕살지 사후방칭미
- 조식 曹植, 『남명집 南冥集』 권1 「우음 偶吟」

대학에선 진실과 정의가 중요하지만, 사회에서는 이를 중요시하면 어리석다는 편견을 듣곤 한다. 사회는 현실적이라 진실보다 이기는 것, 이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가령 소송할 적에도 진실을 밝히는 변호사보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호한다. 소송으로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기보다 진실을 은폐하여 패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알 파치노 주연의 옛 영화 「용감한 변호사」(1979)에서 변호사 커클랜드는 강간죄로 기소된 판사의 변호를 맡았다. 그런데 판사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음에도 검사는 그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

지 못했고, 재판부는 판사라는 이유로 감싸려고만 했다. 진실을 아는 커클랜드는 이 판사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채 배심원단에게 울분을 토했다.

커클랜드는 진실이라는 정의를 위해 승소할 수 있었던 재판을 포기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정의를 위한 멋진 행동이다. 그러나 훗날 다른 의뢰인이 자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을 터놓고 말하기 꺼려질 수 있다는 맹점이 있어 의뢰인은 줄 것이다. 이것이 그의 현실이며, 어리석음이다.

조식은 바른 선비가 범의 가죽과 같다고 했다. 정의로운 사람을 바른 선비라고 한다면, 정의는 범과 같은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 사회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 정의로운 사람을 곁에 두기 두려워하는 것은 범을 옆에 두지 않고 그저 호피 虎皮를 좋아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우리는 정작 그런 사람이 살아서 정의로운 일을 할 때 곁에 머물지 않는다. 그가 죽거나 위인으로 이름이 실리고 나서야 그를 마음 놓고 칭송한다. 이는 모두가 범이라는 맹수를 두려워하듯, 범을 옆에 두면 자기도 다칠까 두려워서이다.

조식은 문정대비를 과부라고 하고 왕을 외로운 후사 後嗣라며 거침없이 상소를 올렸다. 그 또한 자기 스스로가 범이라고 생각하



Photo by Sixteen Miles Out@Unsplash

고, 자기 자신마저 호피가 됨을 알았을 것이다. 범 같은 정의를 위한 그의 어리석음은 정말이지 멋진 어리석음이다. 그 또한 커클랜드처럼 용감한 사람이기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조식의 명구를 보며, 우리는 다만 당당하지 않을지언정 부끄럽지 말자는 소박한 신조를 지키며 범 같은 정의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오대혁

동국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시인, 문화비평가
논문 및 저서 『원효설화와 미학』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공동 시집 『시의 끈을 풀다』

제주에선 따찌가 독가시치다
등지느러미와 배 밑 지느러미에 살벌한 독가시
처남이 칼바람 속에 낚아 올린 따찌가
대포항 검은 바위 물웅덩이에서
세속 공기에 사래 들러 객객됐다
순간 중학교 수산업 선생님의 입술이 떠올랐다
물고기가 도랑 속에 갇히면 고민사^{苦悶死}를 한다
수족관 속에 오래 갇힌 횃집의 물고기들은
죽음의 공포와 함께 자신의 내장을 파먹는다
바다를 차고 낚시에 쫓겨 올라온 물고기는 즉사
그러니까 바로 바윗돌에다 대가리를 때려야 한다

느닷없이 고민사하고 있는 따찌를 보며
저 고통받는 짐승을 거두어 주리라 생각하고
따찌의 꼬리지느러미를 잡는 순간
아뿔싸, 날 선 독가시
저승 문턱에서 뽑아 올린 독가시가 파닥이며
내 엄지손가락을 겨냥했다
맹독의 바다가 온몸을 훑으며 전율했다
장모님은 눈물 그렁그렁한 사위를 보며
물썰 때쯤 돼야 아픔이 가신다 하셨다
그날 이후 따찌는
내 몸 깊숙한 우물 속에 산다

커피 도시 강릉을 아시나요?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강릉의 가을은 커피 향과 함께 깊어간다. 100명의 로스터와 바리스타, 커피 애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내린 드립 커피를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100인 100미 핸드드립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강릉 커피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면 ‘아, 가을이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게다가 열대야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고의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끝이라 올 커피 축제가 더 반가울 수밖에 없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돼 열여섯 번째를 맞이하기까지 강릉 커피 축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커피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람객에게 커피 향 그윽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을의 낭만과 추억을 선사해 왔다.

주말에 맞추느라 날씨는 조금씩 바뀌지만, 10월 중순쯤에 나흘간 진행되는 축제의 백미는 10여 년 전통의 ‘100인 100미 핸드드립 퍼포먼스’다. 참가자와 관람객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축제의 서막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100여 명의 참가자가 저마다 취향에 맞게 종이나 용 필터를 깎아 드리퍼에 분쇄한 원두를 담고, 드립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정성을 다해 커피를 내리는 장관을 상상해 보시라. 서버에 떨

어지는 커피 역시 100여 가지일 수밖에 없다. 단지 커피를 즐기고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딴 내가 얹은 지식을 동원해서 주장하는 커피의 매력은 향기와 맛에 있다. 적절한 온도의 물을, 분쇄된 원두와 어떻게, 얼마나 만나게 하느냐에 따라 커피의 격이 달라진다. 핸드드립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 물과의 접촉 시간을 물줄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100여 명의 커피를 다 맛볼 수는 없으나, 오며 가며 얻어 마신 서너 가지 커피 속에서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커피를 만나는 행운도 기대해 볼 만하다.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축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커피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로 꾸려진다. 연례 행사로 전국 유명 커피 업체가 참여하는 커피 무료 시음 행사가 열리고 라테아트, 핸드드립, 로스팅 등 각 분야 최고의 바리스타를 뽑는 ‘바리스타 어워드’, ‘핸드드립 어워드’ 등 프로 바리스타들의 경연 대회가 열기를 더한다. 300여 개의 부스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 가득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커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에 원두와 커피 도구도 구매할 수 있다.

관람객이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어 보는 ‘커피 로스팅 & 추출

체험'을 비롯해 축제 기간 지역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고 받은 스탬프에 따라 커피 축제 기념 머그컵을 증정하는 스탬프 랠리, 커피 명인의 노하우를 듣는 세미나 등 커피 관련 행사와 축하 콘서트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든다. 각종 음료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푸드 트럭이 축제의 재미를 더하고, 다양한 굿즈와 커피 관련 제품, 커피로 그린 그림도 눈을 즐겁게 한다. 아마도 없어진 듯..., 둘둘둘 커피, 계란 동동 쌍화차와 같은 독특한 메뉴로 많은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커피 도시 강릉의 명성에 낭만을 더해주던 '7080 청춘다방'의 교복 입은 바리스타 어르신들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강릉은 예로부터 차 문화가 발달했던 곳으로, 강동면 하시동에 우리나라 유일의 신라 시대 차 문화유적지인 한송정^{寒松亭} 다구^{茶具} 유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화랑이 강릉의 명승을 찾아 차를 달여 마셨다는 기록은 곧, 강릉이 '커피 도시'가 될 만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그 문화와 전통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한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자판기 커피로 유명한 1980년대 안목의 '길다방'이다. 길다방 전성시대의 숨은 공로자는 30여 대의 자판기에, 콩가루나 미숫가루를 활용한 저마다의 비법으로 독특한



Photo by Alexandra Gorn@Unsplash

맛을 담아냈던 선구적 바리스타(!)들이었다. 이는, 멀기만 했던 커피를 우리네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분수령이자, 훗날 '커피 도시 강릉'을 만드는 서막이기도 했다. '보헤미안'의 박이추, '테라로사'의 김용덕, '커피커피'의 김준영·최금정 부부도 커피 도시 강릉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커피 1세대의 커피 명인으로 핸드드립 커피 문화를 전파해 온 박이추 씨가 연곡에 동지를 튼 게 2001년. 이듬해 ‘국내 최초의 커피 공장’으로 스페셜티 대중화를 선도한 김용덕 씨가 정착하면서 강릉 커피는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곳곳에 개성 넘치는 카페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커피 도시 강릉’의 면모가 갖춰지기 시작했고, 김준영·최금정 부부가 10여 년의 노력 끝에 왕산면 커피 농장에서 ‘국내 최초의 상업용 커피’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커피 도시 강릉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됐다.

강릉 커피 축제는 친환경 축제, 무장애^{無障礙} 축제를 지향한다. 플라스틱 사용은 전면 금지다. 축제장 내에서는 생분해 종이컵을 사용하고, 사용된 컵은 전량 회수하여 종이 형태로 재활용한다. 2022년에 사용한 종이컵은 이듬해 커피 축제를 주관하는 강릉문화재단의 홍보용 책자에 사용되었으며, 2023년에 사용한 컵은 올 강릉 커피 축제 리플릿에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장애인이나 영유아 가족,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해 휠체어를 대여하고 휠체어 리프트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누구나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배려도 따듯하다.

하지만 다 좋을 수는 없다. “때가 되어서야 행하는 노력은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 미리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다

한다.”라는 『밀린다왕문경』의 말씀이 단지 불가의 가르침뿐이겠는가. 찬사나 명성에 흔들리기에 전에 때에 따라 개최 장소가 바뀌는 데서 오는 혼란, 접근 방식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람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일이 곧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 내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강릉에 산재한 커피 전문점은 450여 곳. 대다수가 원두를 볶는 로스터리 카페로 고유의 손맛을 자랑한다. 커피 마니아의 눈과 입을 사로잡으며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강릉 커피 거리는 물론이려니와, 최근 커피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사천면 진리 해변과 연곡면 영진해변에 각기 다른 분위기와 맛을 자랑하는 커피 전문점이 즐비하니 자, 이제! 커피 도시 강릉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잠시 잊어버릴 것을 권한다. 그리고 잠깐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시라. 가없이 높푸른 하늘이, 굽이굽이 뻗어 내린 대관령이, 메밀꽃 이는 드넓은 바다가, 뭇 시인묵객의 시상^{詩想}을 자극했던 경포호수가,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주는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아름답고, 사랑처럼 달콤한’ 커피 한 잔이 커피 도시 강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과 멋, 추억과 낭만을 더해 줄 것이다.

자기만큼 소중한 것

록경 정사
총지사 주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3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주 교동에는 조선의 부호 최부자가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은 12대, 400년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9대에 걸쳐 진사^{進士}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자손들이 가훈을 받들고 가훈대로 생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 가훈 중 하나는 ‘만 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부자의 자손들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훈을 받들어 욕심을 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죽은 후에 인물이 나더라도 진사 이상 오르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 당시 진사는 명예직으로 실권은 하나도 없고 그 지역에서 유지의 노릇만 하였습니다. 최부자가 자손들에게 진사 이상 벼슬을 못 하게 한 것은 정치와 권력은 무상한 것이라, 한 번 정치에 입문하여 권세를 가지게 되면 탐닉하여 빠져나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세의 판도에 따라 사람의 목숨과



재산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최부자로 꼽히는 최준은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을 했으며, 독립 후 학교를 건설하며 교육사업에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최씨 집안은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타행을 실천함으로써 400년 동안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잘되는 사

람,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지고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불운이 닥치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 시대 세 번이나 정승 자리에 올라 백성을 애민했던 황희 정승의 집에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대감 어르신,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오늘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혹여 소에게 부정이 탈까 걱정이 되어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쭙었더니 황희 정승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다른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오늘 아침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늘이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제사를 지내도 되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황희 정승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사람이 소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제사를 지내고, 소가 태어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이상합니다.”라고 그 이유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황희 정승은 “사람은 다 마음에 따라 결과가 결정

되는 것이라.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나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법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황희 정승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 만물은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하여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감인의 세계, 인욕의 세계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멀었네.’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아니 벌써 이렇게 지났나.’ 하고 생각하면 자기 일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청정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소중한 자신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은 버리고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매일 불공하고 서원합니다.

닭은꽃 시대에서 나를 지키기

방귀희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의 전설인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지방에 다녀오는데 흥미로운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봤다. ‘찰리 채플린 닭은꽃 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물이었다. 채플린은 장난기가 생겨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 대회에 출전했다. 그 대회에서 채플린은 과연 몇 등을 했을까? 1등도 아니고 아쉬운 등수인 2등도 아닌 3등을 했다고 한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찰리 채플린 닭은꽃 대회’에 채플린 자신이 출전했음에도 1등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찰리 채플린 닭은꽃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은 채플린처럼 보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는 것이다.

가요계에서도 인기 가수와 닭은, 일명 모창 가수들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예를 들어, 가수 나훈아 모창 가수 너훈아는 내가 봐도 얼굴 이미지도 비슷하고 노래도 똑같이 부른다는 생각이 든다. 모창 가수 너훈아는 가왕 나훈아를 자주 볼 수 없었던 시청자들에게 나훈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Photo by Pratiksha M N@Unsplash

그러다 케이블 TV가 개국하면서 그동안 공중파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었는데, JTBC의 ‘히든싱어’는 커튼 뒤에서 모창 도전자들이 인기 가수와 같은 창법으로 정해진 노래를 한 소절씩 나누어 부르며, 그들 속에서 진짜 가수를 찾아내는 퀴즈 형식의 누구 닭은꽃 대회이다. ‘히든싱어’는 2012년 개국과 함께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좋아 시즌 7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요즘도 트로트 가수를 찾는 대회에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잘 부르면 ‘제2의 누구다’ 하며 칭찬한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닭은꽃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이인자나 계승자를 찾는 일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닭은꽃 찾기는 재능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도플갱어라고 하여 얼굴이 닭은 사람을 찾는 일에도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유명인 누구를 닭았다는 이유로 화제가 되곤 한다. 이렇듯 사람들

이 닳은꼴을 찾는 이유는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닳았다는 것에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닳은꼴 찾기는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니다. 생성형 AI로 보통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닳은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똑같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자기 AI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송금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화상 전화로 본인과 다른 의사 표현을 하여 상대방이 믿게 한다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의 역할이 크다. 불교에서는 ‘나는 없다’는 무아^{無我}와 ‘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無常}을 말하며 ‘없다’는 것을 공^空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 ‘참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마음 닦기가 필요한데,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수행 방식은 명상이다.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도 판단하게 된다.

나를 모르는 채 자신의 닳은꼴이 나타나면, 그 닳은꼴이 나인 줄 알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 하여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 ‘참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슈베르트 병

우벽송

성악가, 시인, 현대미술가
이탈리아 외 독창회, 오페라공연 다수
저서 『닥치고 슈베르트』



슈베르트

예술에서 어느 경지를 넘으면 억지로 노력한 진실함과 자연스레 노력한 진실함, 그리고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실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자연스러운 진실함에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진실함과 노력한 흔적이 보

이는 진실함,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진실함이 있다. 노력과 연마를 통해 다다른 진실의 자리에는 상처의 흔적도 보이는데, 그 흉터의 깊이에 따라 진실함을 표현하는 예술가의 내공 또한 비례한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분야의 예술도 그렇겠지만 클래식 음악에도 가짜 진실함이 사방팔방 널려 있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곡이 유일하게 노블^{noble}하다”고 극찬했던 베키트를 나는 깊이 이해한다. 슈베르트에게는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따라올 수 없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진실함이 있다.

슈베르트 병에 걸리면 지극히 진실해지고 그 진실함이 진솔함을 넘어 절실해지며, 그 절실함이 간절함이 되어 연시감처럼 여물면 진리를 실감하게 된다. 거짓이 필수인 이 세상에서 예술가는 정신이상자가 된다. 예술의 치명적 약점은 거짓말을 못 하는 것인데, 예술가는 공식 지구 병동 환자인 것이다.

사람의 양심이 극도에 치달으면 자살, 아니 탈출에 이른다. 언어로 도달할 수 없는 양심의 영역은 늘 외롭고 쓸쓸해서 인정사정없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특별한 아픔을 견뎌낼 줄도 알아야 하며, 죽음에 이르는 병과 흡사하여 용기 없는 자는 선불리

않으면 안 되는 병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겨울 나그네’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겠으나 정작 떠나겠다는 용기 있는 자는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누가 선뜻 자신을 대면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준비하라!

슈베르트는 인간이 인간에게 적이 되는 비참한 세상이 싫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곡은 전부 다 아픈 곡이다. 슈베르트는 아픈 게 싫어서, 다른 이를 아프게 하는 것도 싫어서, 아프지 않으려고 그 많은 아픈 곡을 작곡한 것이리라.

들어보시라! 그리고 배워보시라, 직접 불러보시라! 그때가 되면 알리라! 보장하건데 그대는 소리 내어 통곡하며 울리라!

물건 제도 철학

남해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 사무국장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구체적인 일상의 삶은 좋은 물건으로 보장되고, 구체적인 좋은 물건은 주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제도가 만들며, 좋은 물건과 좋은 제도는 추상적인 좋은 철학이 책임진다.

한 사회 구성원의 시선이 ‘물건’에만 가 있으면 후진국, ‘물건’과 ‘제도’에 가 있으면 중진국, ‘물건’과 ‘제도’와 ‘철학’에 모두가 있으면 선진국이다.”라고 말하였다.

문명의 발달 과정은 물건, 제도, 철학의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에는 물건 수준에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있고, 물건과 제도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더 나아가 물건과 제도, 철학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는 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을 만드는 재료와 음식의 맛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것은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도는 시스템이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레시피에 의해 변하지 않는 음식 맛을 제공한다.

철학은 물건과 제도 그 위에 있는 개념이다. 내가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고 싶거나, 내가 최고 품질의 식재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거나, 최고의 한 끼를 만들고자 하거나, 최고의 음식으로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이다.

고명환 작가는 “물건만 바라본다면 천만 원대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제도를 안다면 억대의 수익을 올리며, 철학을 이해한다면 무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물건의 단계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개업하여 성공하기 위해 물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음식 재료에서 이익을 남기려 노력한다. 어떻게 하면 물건에서 내 이익을 얻을까 고민하는 단계이다. 당연히 재료가 부실해지니 맛이 없어지고 손님의 발길은 끊길 수밖에 없다. 물건에만 머무르면 사고가 확장되지 않고, 자신에게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제도는 물건보다 한발 앞선 단계이다. 물건은 내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반면 제도로 나아가면 조금 더 시스템 안에서 제도화된 레시피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넛 회사 노티드의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넛 브랜드 노티드의 브랜드 철학은 나누는 행복에 있습니다. 노티드



Photo by Brigitte Tohm@Unsplash

는 도넛이 아닌, 기분 좋은 경험을 선물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물건 수준에서 더 맛있는 도넛, 단순히 더 예쁜 패키지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눌 때 느끼는 사람들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도넛이 주는 기분 좋고 행복한 경험은 무엇일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 노티드의 철학은 바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노티드가 고객에게 선사한 알록달록한 패키지, 굿즈, 컬래버, 매장 인테리어 같은 모든 요소는 브랜드 철학에서 나온 시도였습니다. 특별함이 느껴지는 도넛을 주변 사람과 나누면서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확산하였고, 음식 그 이상의 가치를 나누고 싶다는 브랜드의 철학은 소비자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물건, 제도, 철학의 원리는 사람의 내적 성장에도 적용된다. 물건이 ‘나 자신’이라면, 제도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철학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정하고, 그 속에서 지혜로운 결정이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계행과 보시로써 삶의 방식을 확립하고, 수행으로 삶의 가치관과 철학을 확립하여 지혜에 눈을 뜨게 된다.

어릴 때는 여러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에 집중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를 이해하고, 중년에 접어들며 자신만의 철학을 세울 수 있게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지혜로 전환해야 한다. 철학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위대함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마음의 힘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부지런히 행하며 항상 깨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
어떠한 급류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일근천하무난사—勤天下無難事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면 집안
에 평화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깨어 있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면 마음의 힘이 강
해집니다. 그러한 힘으로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입니다. 불행도 행복
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결국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
스로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결
같은 부지런함으로 항상 깨어서 스스로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화령 저, 『마음이 으뜸 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중에서



Photo by Andrew Neel @Unsplash

거지 팔자, 정승 팔자

위드다르마 편집실

중국 당나라에 ‘배휴’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다. 그에게는 ‘배탁’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자 형제가 외삼촌 댁에서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덕 높은 ‘일행’이라는 스님이 외삼촌 댁을 방문하였고, 그들 형제를 유심히 보던 스님이 외삼촌과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요?”

“조카들인데 부모가 일찍 죽어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내보내시오.”

“내보내다니요?”

“저 아이들 관상이 거지 될 상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저 아이들로 말미암아 이 집안은 물론 삼이웃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보내시오.”

“그렇지만 부모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사람은 자기 복대로 살아야 하는 법, 이 집이 망한다면 그 아이들의 업은 더욱 깊어질 것이요.”

밖에서 대화를 엿들은 배휴는 스님이 돌아간 뒤 외삼촌께

말하였다.

“외삼촌, 저희 형제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떠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일행 스님과 나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빌어먹을 팔자라면 일찍 빌어먹을 일이지, 외삼촌 집안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떠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외삼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함께 집을 나온 형제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거지 행각을 하며 하루하루 구걸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는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령도 편안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산으로 들어가 숲을 구워 팔면서 공부도 하고 무술도 익히자.”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 숲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면서 틈틈이 책을 구해 읽고,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검술도 익혔다. 그리고 숲은 필요한 식량을 구할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다발 다발 묶어 단정한 글씨로 쓴 편지와 함께 어렵게 사는 집집마다



Photo by Yulia Huzenko@Unsplash

나누어 주었다.

“이 숯은 저희가 정성 들여 구운 것입니다.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쓰십시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꾸준히 숯을 나누어 주자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던 사람도 그들의 진심 어린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사하게 되었고, 이들 형제에 대한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져 나가 외삼촌 귀에도 들렸다. 그리하여 외삼촌이

찾아와 “잠깐이라도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간청하였다. 마지못해 외삼촌을 따라 집에 이르자 때마침 외삼촌 댁에서 나오게 된 인연을 만든 스님과 조우하였고, 스님은 배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얘야, 너는 정승이 되겠구나!”

“스님, 예전에는 저희 형제가 빌어먹을 상이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어찌 정승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거짓말 마십시오.”

“전날에는 네 얼굴에 거지 팔자가 가득 붙었더니 오늘은 정승의 심상이 보이는구나. 그래, 그동안 무슨 일을 하였느냐?”

배휴와 배탁이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스님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의 마음가짐과 생활이 거지 팔자를 정승 팔자로 바꿔 놓았구나.” 하였다.

그 뒤, 배휴는 정승이 되었고 동생 배탁은 대장군의 벼슬을 마다하고 뱃사공이 되어 오가는 사람을 건네주며 고매하게 살았다고 하는 설화가 있다.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자신이 지은 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노력하는 재능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인간 기관차’라고 불리는 체코의 에밀 자토펙(Emil Zatopek)은 세계적인 육상 스타입니다. 선수 시절, 무려 18개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고,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5,000m, 1만 m, 마라톤에 출전해 세 경기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세계적인 장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자토펙은 육상 선수가 된 후 출전한 첫 경기에서 아쉽게도 2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토펙은 후에 “이때 2등을 한 덕에 육상에 흥미를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상에 뛰어든 자토펙은 4년 동안 2,000m, 3,000m, 5,000m 경주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기록을 차례로 경신했습니다.

훈련생 시절, 자토펙은 재능도 실력도 형편없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스포츠계는 훈련보다 타고난 재능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때문에 별다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바로 좋은 기록을 내는 선수만 주목받고,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는 재능의 그늘에 가려져 존재 자체가 희미했습니다.



Photo by Miguel A Amutio@Unsplash

하지만 자토펙은 연습을 통해서만 그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토펙은 타고난 근력으로 경기에 임하는 다른 선수와 달리 자신의 몸을 훈련을 통해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육상 선수는 그저 달리기만 하는 것이 훈련의 전부였던 그 시절,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 근력을 높이는 방법이나, 짧은 거리를 전속력으로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법은 지금은 기본적인 훈련 방법이지만, 당시에는 자토펙이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한 그만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능을 갈고닦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재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재능은 바로 ‘노력하는 재능’입니다.

총지종의 소의경전 所依經典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불교 종단을 총지종,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으로 구분할 때 기준은 교주, 본존불, 소의경전이 무엇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총지종의 교주는 ‘비로자나 부처님’, 본존은 ‘옴마니반메훔’, 소의경전은 『대일경』, 『금강경』,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입니다. 조계종의 교주와 본존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며, 소의경전은 『금강경』입니다.

총지종 소의경전 중 하나인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의경전이란 신행 信行을 비롯해 교의적 教義的으로 의지하는 근본 경전을 일컫는 말로, ‘소의 所依’란 의지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 경은 육바라밀의 실천 수행을 교설한 경전입니다. 이 경은 밀교경전이라기보다는 대승경전에 속합니다.

이 경은 인도 계빈국 출신인 당나라 반야 般若 삼장 스님이 정원 貞元 4년 서기 788년에 번역하였습니다.

이 경은 9권 10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씨보살 自覺妙覺이 중심이 되어 부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명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불멸 후 400~500년경에 일어난 대승불교 사상에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입각하여 육바라밀을 설한 것입니다.

내용은 제1권 귀의삼보품(중생이 삼보에 귀명해야 하는 이유), 제2권 1품 다라니호지국계품(여래의 광명은 모든 물체의 장애를 받지 않음), 제2권 2품 발보리심품(보리심의 발심과 수행과 불퇴전의 법), 제3권 불퇴전품(대비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법), 제4권 보시바라밀다품(보시바라밀다를 먼저 설하는 이유), 제5권 정계(지계)바라밀다품(정계의 공덕과 수행방편을 설함), 제6권 안인(인욕)바라밀다품(안인을 수행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제7권 정진바라밀다품(정진 원만 수행법), 제8권 정려(선정)바라밀다품(정려를 사유하고 수습하는 법), 제9권 반야(지혜)바라밀다품(반야의 종류와 어떤 방법으로 닦는가), 제10권 반야바라밀다품(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8가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부터 제4권까지는 부처님께서 ‘육바라밀다경’을 읽기 전에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설하셨습니다.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3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1. 친구를 무는 아이

자신이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친구나 다른 사람이 만지면 싫다는 반응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이로 무는 행동을 한다.



● 원인

- 친구가 다가와 놀잇감을 만지면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무

는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

- 이가 나기 시작할 무렵 무언가를 깨물고 싶은 욕구를 느껴 또래를 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 무는 행위를 통해 부모의 관심을 끌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 지도방법

- 아이를 안아 마음을 진정시킨 후 적절한 방법을 알려준다.
- 부모는 아이가 부정적인 상황일 때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보다는 정적인 상황일 때 상호작용과 관심을 보여준다.
-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이나 간식 등을 나누어 주며 함께 하자고 보여주고,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치아 발육기 등 물어도 되는 것을 주어 아이의 욕구를 수용해 준다.

●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1단계 - 생후 1년 전후기 구강의 특징

이 시기는 입과 구강 부위에 쾌락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몰려있어 빨거나 입에 닿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 구강을 통한 쾌감을 적절히 경험하지 못하면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착 현상이 일어나므로 영아의 빨고 무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쟁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
있다.



PART 4 전통등 축제 Traditional Lantern Festivals

- I. 풍물놀이 Pungmul-Nori
- II. 추억의 놀이 Traditional Games
- III. 동물이야기 Stories of Animals
- IV. 바다 속 풍경 Underwater Story
- V. 춤 Dances
- VI. 서울빛초롱축제 Seoul Lantern Festival



용호상박 Dragon and Tiger, A Well-Matched Contest

동물이야기

동물은 예로부터 전통등을 만드는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다. 그 대상도 길짐승부터 날짐승까지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상상 속의 동물인 용과 봉황도 제작되었다. 이는 동물이 갖고 있는 상징에 기대어 가정의 평안을 빌고 소원의 성취하려는 방편이었다.



산신령과 백록 A Mountain God and a Mythical White Deer



잉어 Carp

지난 호 정답

추	선	법	회		질		처	용	가
석		구		단	풍	나	무		가
날	개		야		노				호
	연		간		도	산	안	창	호
	성	냥	개	비			하		
서			장				무	더	기
리		정			어	부	인		
태	풍	의	눈		불			출	석
			사	자	성	어			굴
가	을	바	람		설		퇴	적	암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㉔				㉕			②㉖		㉗
			③						
④		㉘					⑤		
⑥㉙					⑦㉚			㉛	
				⑧					
⑨					⑩				
		⑪		㉜			⑫		㉝
⑬						㉞			
			⑭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종단의 승직자들이 모여 수행을 점검하는 큰 행사
- ②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 ③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불교총지중 중립 중학교
- ④ 어떤 일이나 몸 등 상태가 위험함을 알리는 징후나 조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탐탁하여 마음이 기쁘다
- ⑥ □□□□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 ⑦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겪고 간신히 살아남을 이르는 말
- ⑧ '한 자의 거리'라는 뜻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기념으로 주고받는 물품
- ⑩ 길게 기른 머리털
- ⑪ 어떤 시대의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짓는 정신
- ⑫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 ⑬ 높은 수준의 지성과 폭넓은 교양을 갖춘 사람
- ⑭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

세로 열쇠

- ㉔ 완력이나 권력 따위로 강제로 억누르는 성질을 띤
- ㉕ 육군, 해군, 공군의 삼군을 아울러 이르는 말
- ㉖ 학교의 개교를 기념하는 날
- ㉗ 일정한 수효 중 거의 모두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
- ㉘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작은 물건
- ㉙ 동쪽에 있는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
- ㉚ '아홉 자나 되는 큰 키'라는 뜻으로 키가 아주 큰 사람을 이르는 말
- ㉛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큰 고통
- ㉜ 어떤 사실을 옳다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함
- ㉝ 지식과 자료 등을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 가치를 높임
- ㉞ 살인죄 누명으로 탈주를 시도하는 스티브 맥퀸 주연의 1974년도 영화
- ㉟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밀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노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마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남 해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우 인 이수영 이만성 이해성 자선화 정건호
정희련 진 여 (재)불교총지중유지재단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창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송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Photo by Marko Sun@Unsplash

어지간한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다녔는데, 요즘은 글 쓰기에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올라 인터넷을 뒤지곤 한다. 얼마 전 요즘 세대들의 '문해력'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 세대에야말로 '기억력'이 문제다. 마감 때면 유난히 이것저것 단어를 많이 들여다 보게 된다. 그중 MZ세대가 사용하는 말 중 사자성어의 동음이의이라고 할까,

고진감래, 고옹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조삼모사, 조금 모르면 3번, 완전 모르면 4번(짜자)
일취월장, 일요일에 취하고 월요일에 해장하자

언어도 시대의 산물이라고 흥미로운 언어유희다. 특히 요즘 신조어 중 가장 멋있었던 말은 '중꺾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본인이 염원하고 목표하는 바를 위해 결과를 떠나 꾸준히 나아가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다.

'중일마'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 고위공직자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쓴 데서 비롯됐다. '꺾이지 않겠다'는 뜻이 무색하게도 '(사과하지 않는)일본'이 중요하다는 말 때문에 변색 되었다. 어쩔티비, 킹반네, 스불재를 꾸웨엑, 이생망 깨닫고, 갑툭튀 말기를. '심심한 사과'를 몰라도, '사흘'을 4일로 알았더라도 누구의 마음이 중요한지 까먹으면 안 된다.

10월호



선지식과 함께 하는 즐거움,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으랴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